

〈對論 1〉

1/ 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

한상일



한상일(韓相一) 1965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클레어몬트대학에서 일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으며, 스탠퍼드대학, 도시샤대학, 프린스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일본의 국가주의』, 『일본 진후 정치의 변동』, 『제국의 시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공저),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등이 있다.

일본의 ‘우익’은 근현대 일본 정치·사회사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집단이다.¹ 프랑سخ혁명 이후 등장하는 서양에서의 우익(the right-wing)이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좌익’에 대치하는 보수 세력을 의미한다면, 천황제와 맞물려 있는 일본의 우익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일본의 우익도 체제 옹호적이고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반(反)공산·사회주의’ 이념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정신적 기초는 “천황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지상주의”이다.² 이것이 다른 나라의 우익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다.

우익의 역사를 총 정리한 『대우익사』(大右翼史)는 일본에서의 ‘우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시세에 아첨하지 않고/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권력에 굴하지 않고/이익을 찾지 않고/허명을 추구하지 않고/악명(惡名)을 감수하고/일어나면 참간(斬奸)의 검을 휘두르고/높고 고귀한 조국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이것을 참된 우익이라 일컫는다.³

‘조국애’의 핵심은 곧 천황 중심의 국가지상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인 일본의 우익은 메이지(明治) 말기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마르크시즘이 대학 등 지식인 사회에 침투해 일본공산당이나 학생운동을 생성, 발전시키면서 태어난 ‘좌익’과 달리 역사적·국가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부국강병’이라는 국가목표가 상징적으로

1 쇼와(昭和)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언론이나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도 ‘우익’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는 우익을 주로 ‘지사’(志士) 또는 ‘대륙낭인’(大陸浪人)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1920년대 국가개조와 소화유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중심인물들의 사상과 행동을 분석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들을 ‘우익’ 또는 ‘국가주의단체’라고 정의하면서 일반화되었다. 우익사상과 행동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 분석과 자료로서는 『現代史資料: 國家主義運動』 1, 2, 3(みすず書房, 1963~1974)과 『資料: 戦前における右翼団体の状況』(公安調査庁, 1964~1967) 4권이 있다.

2 山本彦助, 『『國家主義團體の理論と政策』抄』(1940), 『現代史資料: 國家主義運動』 3, みすず書房, 1974, 3~169쪽 참고.

3 『大右翼史』(荒原朴水, 秀文社, 1966)의 표지 안쪽.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메이지국가는 본질적으로 국권 확장을 지향하고 있었다. 막말(幕末)의 ‘존왕양이-존왕도막’ 운동에 뿌리를 맞대고 있는 우익은 유신 후 국권 확장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천황 중심의 일본제국 건설에 일역을 담당했다.

전전(戰前) 우익운동사의 계보는 크게 네 가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단체의 효시로 알려진 현양사(玄洋社)와 이를 이은 흑룡회(黑龍會) 계통, 둘째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이념과 노동운동의 혼란기에 탄생한 노장회(老壯會)·유존사(猶存社) 계통, 셋째는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한 경륜학맹(經綸學盟) 계통의 단체 그리고 넷째는 1930년대 테러에 앞장섰던 농본주의와 소화유신을 외쳤던 그룹이 그것이다. 시대적 상황과 결성의 배경은 달라도 ‘황실 중심의 국가지상주의’와 ‘아시아 해방’이라는 공통된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⁴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아주의는 우익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전의 우익 세력은 정부의 정책결정자나 군부와 생각을 같이했고, 또한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현지의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침식하기 위해 그들이 전개한 ‘공작적’ 활동의 대부분은 도쿄 정부나 군부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주의를 앞세운 우익 활동가들이 한국, 중국, 몽골 등 대륙 깊숙이 들어가 대륙 진출의 기초를 다지면 정부는 그 기초 위에서 정책적으로 팽창을 실천했다. 마치 기독교를 앞세운 선교사들이 서양 제국주의 팽창을 앞서서 준비한 것과 같이, 아시아주의를 내세운 일본의 우익 활동가들은 대륙 팽창의 길을 닦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본의 우익과 아시아주의의 원류를 찾아보고, 우익과 아시아주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메이지(明治), 쇼와(昭和), 헤이세이(平成) 시대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4 각종 우익단체의 강령과 규약에 관해서는 公安調査庁, 『資料：戦前における右翼團體の状況』(上), 1964 참고.

1. 우익과 아시아주의 원류

아시아주의는 전전 일본 우익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우익집단의 생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쿠가와막부 말기 ‘존왕양이-존왕도막’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은 ‘유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협력했고 단결했다. 그러나 유신 후 신생 메이지국가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이르러 갈등과 분열이 나타났다. 그 중심 의제가 1873년의 ‘정한론’이었다. 먼저 한국을 정벌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실을 먼저 다진 후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였다. 복잡한 정치과정과 내전을 치루고 결국 후자, 즉 선(先) 국내 정비, 후(後) 대륙 진출이 국가 진로로 확정됐다. 그리고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서양 제국주의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국가정책으로서의 정한론은 좌절됐다. 그렇다고 해서 패배한 정한론자들이 국력을 대륙으로 뻗어 ‘동양경영’을 실현한다는 ‘대륙옹비’의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노먼(E. H. Norman)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이를 대륙 진출을 위한 활동의 기점(起點)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정한론 패배 후 가고시마로 낙향해 ‘사학교’(私學校)를 설립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우익(the extreme nationalist societies)의 선구자”였다.⁵ 그러나 본격적인 우익집단의 형성과 행동적 아시아주의는 서남전쟁에서 사이고가 패배한 후부터였다. 정한론을 심정적으로 지지했거나 또는 서남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패전 후 대륙옹비를 실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대륙을 향해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익의 원류는 “사이고 다카모리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한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람들”이었다.⁶ 정한론이 아시아주의를 지향하는 ‘우익’을 생산한 것이다.

정한론으로 상징되는 대륙 진출론자들은 서남전쟁 후 자신의 이상을 구

5 E. Herbert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17(3), 1944. 9, pp.261~284.

6 『大右翼史』, 10쪽.

체화하기 위해 한반도를 거쳐 만주, 중국, 시베리아, 몽골,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점을 만들고,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삶의 양태를 관찰했고, 불만세력들과 연결해 정치적 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지세력이 늘어나면서 단체로 발전했다. 중국을 넘나들던 소네 도시토라(曾根俊虎)는 흥아회(興亞會, 1880)를,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시다 긴코(岸田吟香)는 상해와 한커우(漢口)에 낙선당(樂善堂, 1880)을, 도야마 미쓰루(頭山滿)는 현양사(玄洋社, 1881)를, 만주와 몽골을 오가면서 중국을 탐색한 육군참모본부 출신 아라오 세이(荒尾精)는 상해에 일청무역연구소(1890)를, 오자키 쇼키치(大崎正吉)는 부산에 오자키법률사무소(1893)를,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는 흑룡회(黑龍會, 1901) 등을 조직했다. 마리우스 쟈슨(Marius Jansen)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은 “음모와 모험적 삶을 산 직업혁명가”들이었다.⁷ 이 단체들은 일본과 현지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거점이 되었고 대륙 진출의 근거지가 되었다.

정한론을 ‘원점’으로 하는 우익활동가들의 목표는 아시아 민족의 연대, 즉 ‘아시아주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아시아로 밀려오는 서양 제국주의의 물결에 맞서 아시아를 지키고, 동양의 평화와 질서를 아시아인 스스로가 확립하고, 아시아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공영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아시아 민족들은 긴밀한 연대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⁸ 달리 표현해 서양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민족의 통합’을 뜻하고 있었다.

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하나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국제적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마치 ‘이와 입술, 광대뼈와 잇몸’[순치보거(唇齒輔車)]처럼 동생공사(同生共死)의 운명공동체라는 논리다. 정한 논쟁 후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했던 이타카기 다이ске(板垣退助)의 표현을 빌리면 동양과 서양의 대결

7 Marius B. Jansene, *The Japanese and Sun Yat-s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7.

8 Mark R. Peattie, “Japanese Attitudes Toward Colonialism, 1895-1945”, in Raymon H. Myers &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80~127.

은 “아시아 인종의 생사 문제”였다. 이는 “인도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의 문제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의 문제도 아니다. 오늘 아시아는 모두 한 배에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였다.⁹ 아시아로 밀려오는 서양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과 맞서기 위해서는 피압박적 상황에 놓여 있는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 강한 연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민족의 연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또 하나의 논리는 지리적 근접성과 동종동문(同種同文)의 이론이었다. 피압박적 상황에 있는 아시아 민족, 특히 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뿌리를 같이하고 있고, 불교와 유교와 한자로 이어지는 동일 문명권에 있기 때문에 정립(鼎立)하여 ‘흥아’(興亞)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중국 지배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주의의 정당성을 총 정리한 고테라 겐키치(小寺謙吉)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동종동문, 순치보거의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신뢰하고 제휴해 함께 아시아로 밀려오는 서양세력에 대항하여 “위대한 아시아적 신문명을 건설”하고, “전(全) 황색인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었다.¹¹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동생공사의 운명공동체와 동종동문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주의는 당시 아시아 주변 여러 나라의 혁명가와 개혁가들에게 매력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중화사상에 젖어 있던 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눈을 뜨면서 강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쑨원(孫文) 등도 한때 아시아주의를 중국의 개혁과 통일의 대안으로 생각했다. 조선에서도 19세기 말 개화사상이 대두하면서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등과 같은 개화파 인물들이 일본과의 연대를 통한 개혁을 시도했다. 또한 일진회의 이용구와 같은 인물은 아시아주의라는 이름 아래 일본과의 ‘합방’을 위해 행동했다. 필리핀의 에밀리오 아

9 板垣守正 編, 『板垣退助全集』(上), 春秋社, 1931, 60쪽, 352쪽.

10 Seven Saaler,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Seven Saaler & J. V. Koschmann,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Colonialism, Regionalism, and Border*,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7, pp.1~18.

11 小寺謙吉, 『大亞細亞主義論』, 寶文館, 1916, 258쪽.

귀날도(Emilio Auginaldo)나 인도의 라스 비하리 보스(Rash Behari Bose)와 같은 개혁가와 독립운동가들도 아시아주의에 매혹되어 자국의 통합과 개혁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환상이었다.

전후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아시아주의를 최초로 재해석함으로써 학계에 관심을 모았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아시아주의가 담고 있는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다. 아시아주의를 ‘이상’과 ‘현실’ 그리고 ‘심정’과 ‘논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케우치는, ‘이상’ 또는 ‘심정’으로서의 아시아주의는 일본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 서양의 억압과 속박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본성을 회복하려 했다는 ‘연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시아주의의 침략성을 인정하면서도 “팽창주의 또는 침략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아주의 안에는 ‘다의적’ 의미가 있다는 그에 의하면 “아시아주의는 침략의 수단이나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대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아시아주의에는 ‘침략’의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연대’의 속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의 『삼십삼년의 꿈』(三十三年の夢)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주의 안에는 소박하고 낭만적인 ‘연대’의 속성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혁명가들이 한때 아시아주의에 매료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난 아시아주의의 결과는 ‘이상’이나 ‘심정’과 달리, 팽창을 ‘위장’하고 침략을 ‘은폐’하는 수단이었다. 사이고 다카모리와 정한론을 우익과 아시아주의의 원류로 삼는다면 아시아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학계에서는 사이고의 정한론을 재평가하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정한 논쟁과 이어진 서남전쟁은 유신 후 권력투쟁의 물이 성숙되지 않은 초창기의 정부를 덮친 ‘정변’일 뿐,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

12 竹内好, 『アジア主義の展望』, 『アジア主義』, 筑摩書房, 1963, 7~63쪽.

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은 “안의 불만을 밖으로 돌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원략(遠略)”이고, 그 첫 대상을 조선으로 규정한 것은 다만 사이고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반(反)정한론자를 포함한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다. 캐롤 글럭(Carol Gluck)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민권정치인, 우익활동가, 지식인 모두가 아시아 대륙으로의 팽창을 요구”하고 있었다.¹⁴ 뒤의 동아협동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자나 좌익도 이에 동조했다.

정한론의 ‘정략적’ 요소를 최초로 주장한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郎)도 정한론에 담겨 있는 일본의 한국 지배 의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게무야마에 의하면 한국은 인류학적으로나 지리학적, 또는 역사학적으로도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조선반도가 다른 나라의 세력 밑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실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우리 국민의 여망으로서 가슴 깊이 품어온 것”이라고 한국의 일본 ‘귀속론’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한국은 신공황후의 정한(征韓) 이래 전적으로 일본의 속국”이었다.¹⁵

일본은 연대를 내세우고 강조하면서 연대의 대상인 이웃을 침략과 식민지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문명개화를 지원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한국을 ‘악우’(惡友)로 규정하고 침략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그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주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시아주의의 발상이 일본의 독립 보존과 일본이 직면했던 위기 극복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아시아주의가 아시아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이나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 정립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일본의 위기 극복과 독립 보존이라는 자기 중심의 목표를 현실

13 毛利敏彦, 『明治六年政變』, 中央公論社, 1979.

14 Carol Gluck, *Japan's Modern Myths: Ideology in the Late Meiji Perio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114.

15 煙山專太郎, 『征韓論實相』, 早稻田大學出版部, 1907, 153쪽.

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주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朋友)의 지론인 ‘주권선’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 구축의 수단이었다.

2. 아시아주의와 한국 병탄

‘메이지’는 일본인들에게 ‘영광의 시대’였다. 동쪽 끝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던 일본은 유신으로부터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이 시기에 제국(帝國)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청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대만, 한반도, 남부 사할린반도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만주에서 권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광의 메이지’를 만들어 가는 데 우익과 아시아주의가 크게 기여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은 정한론의 실현으로부터 가능했다. 정한론이 아시아주의의 원점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한반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륙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 메이지 초기 외교를 담당했던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유신 직후인 1870년에 정한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북만주로 연결되고 대륙에 접한 곳으로서, 이곳을 지배하는 것이 실로 황국 보존의 기초가 되고 후일 만국경략진취의 기본”이었다.¹⁶ 정한론 직후부터 한국에 체류하면서 조선 8도를 여행한 오키타 긴조(沖田錦城)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조선은 장래 우리 야마토 민족이 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라”였다.¹⁷

문명개화론자로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도 다를 바 없었다. 그가 한국의 첫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의 발행을 돕기 위해 이노우에 가쿠고로

16 柳原前光, 「朝鮮論稿」, 芝原拓自 編, 『對外觀』, 岩波書店, 1988, 15쪽.

17 沖田錦城, 『裏面の韓國』, 輝文館, 1905, 2쪽.

(井上角五郎)를 한국으로 과견하면서 “일본 이외에 어떤 나라도 한국에 손을 뻗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대륙에 발판을 구축하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독립은 위태로울 수 있다. 그 발판 구축의 첫 걸음이 한국을 우리의 세력 범위 안에 놓는 일이다”라고 훈시했다.¹⁸ 즉, 이노우에의 사명은 ‘한국을 일본의 세력 범위 안에 놓기’ 위해 준비하고 ‘대륙 진출의 가교’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1883년부터 4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권력층 내에 친일세력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그의 책 『한성지잔몽』(漢城之殘夢)은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일본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한반도 지배의 공감대를 아시아주의로 ‘위장’하고, 지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람은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다. 그의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은¹⁹ 서양으로부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게 ‘합방’하고, 그 위에 중국과 연대해 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한국이나 중국 지식인들의 지적 관심을 자극했다. 출판 직후 중국의 개혁론자 량치차오는 자신의 서문을 추가해 『대동합방신의』(大東合邦新義)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상해에서 출판했다. 일진회의 이용구를 비롯한 한국인들도 공감했던 흔적이 있다. 이용구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대동국의 사나이’[大東國男]라고 지을 만큼 감명 받았다고 한다.

『대동합방론』은 서양세력의 아시아 진출이라는 국제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단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루이는 세 단계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는 한국과 일본이 ‘합방’해 ‘대동국’(大東國)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대동국이 중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대동국, 중국, 동

18 近藤吉雄, 『井上角五郎先生傳』, 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1943, 35쪽.

19 『大東合邦論』의 초고는 1885년에 끝냈으나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의 오사카 사건에 연루되어 육고를 치루는 동안 원고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집필해 1891년부터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이 주관하는 잡지 『自由平等經綸雜誌』에 일본어로 연재했다. 그러나 1893년의 단행본은 ‘한문’으로 출판했다. 影山正治 訳, 『現代訳・大東合邦論』, 大東塾出版社, 1963.

남아시아의 여러 섬나라들을 포함한 대아시아연방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합방론』의 핵심 주제는 첫 단계인 ‘대동국’ 건설에 있었다.

다루이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예부터 일가동족(一家同族)과 같은 관계에 있어 왔기 때문에 ‘합방’은 자연스럽게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지형은 입술과 이와 같고, 그 세력은 수레의 두 바퀴의 관계와 같고, 그 정은 형제와 같고, 그 의리는 벗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합방’은 어디까지나 한국을 “일본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인 한국을 장악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강대국들은 “본토 면적의 수십 배에 이르는 속국”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5위’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속국’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의 강대국이나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토 확장이 필요하고, 진출할 곳은 대륙이고,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루이의 표현을 빌리면, 대동국을 건설하면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1870년대의 정한론과 다를 바 없다.

다케우치 요시미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루이 도키치의 “창건”(創見)을 행동으로 “계승”한 최초의 인물은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였다. 우치다는 아시아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우익단체라 할 수 있는 흑룡회를 창립한 인물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도야마 미쓰루와 현양사를 일본 우익의 ‘원조’이고 아시아주의의 ‘요람’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도야마는 우치다의 ‘스승’이었고, 현양사는 흑룡회의 ‘모태’였다. 그러나 현양사가 후쿠오카(福岡)를 근거로 한 지방조직이었음에 반해, 흑룡회는 전국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조직체였다. 전국에서 회원을 충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대륙으로 회원을 파견하고, 국내에서 대륙 팽창의 여론을 선도했다. 그리고 정부나 군부와 연계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익을 역동적 조직체로 격상시킨 인물은 역시 우치다라 할 수 있다.

우치다가 다루이의 “창건을 계승”했다는 것은 천우협(天佑俠)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집단이 조직적으로 한국 문제에 직접 행동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계기는 동학운동이었다. 한국에서 동학운동이 일어나자 현양사는 15명으로 구성된 천우협이라는 ‘특공대’ 타입의 행동대를 조직해 한국에 파견했다. 명분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고, 이웃나라의 존망지추를 묵과할 수 없어 한국과 동조동문(同祖同文)의 나라인 일본은 의협인(義俠人)을 한국에 보낸다”는 것이었다. 즉, 동학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무지를 깨우치고, 청나라를 응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은 도처에서 게릴라식 활동과 폭력을 감행함으로써 사회와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조기에 청나라와의 전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조선에서 풍운을 일으켜 급기야 일청전쟁의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잡자는 것”이었다. 군부와 협의해 천우협 조직을 주도한 도야마 미쓰루에 의하면 천우협의 활동은 청일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화(放火)의 역할”이었다. 현양사 공식 기록[社史]도 천우협은 “개전의 단서”를 만들기 위한 조직체였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편달함으로써 개전의 기운을 촉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⁰ 천우협에서 활동한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는 2년 후 민비시해에 가담하고, 우치다 료헤이는 흑룡회를 조직해 한국병탄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다.

전통적 우익의 뿌리를 이은 우치다 료헤이는 아시아주의를 앞세워 일본의 한국병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다. 천우협 이래 여러 차례 한국을 내왕했고, 흑룡회 창립 후 그 지회를 부산, 대구 등지에 설치해 우익활동가들의 거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1905년부터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현장에서 정부 및 군부와 협력해 병탄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²¹

우익과 아시아주의에 천착해온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에 의하면 우

20 玄洋社社史編纂會, 『玄洋社社史』, 玄洋社社史編纂會, 1917, 499쪽.

21 우치다의 사상과 활동에 관하여는 한상일,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까치, 1982 참고.

치다는 ‘합방’을 이상으로 생각했으나, 메이지정부에 이용당해 ‘병합’으로 현실화되었고, 결국 우익은 ‘의(義)를 저버리는 ‘타락’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역설하고 있다.²² 다케우치 요시미 또한 우치다가 “이용구와 조선 농민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신에 책임을 느껴 그 보상의 일부로 『일한합방비사』(日韓合邦秘史)를 출판하고 ‘일한합방기념비’(日韓合邦記念碑)를 세웠다”고 우치다의 순수성을 변호하고 있다.²³

그렇까? 그렇지 않다. 우치다는 처음부터 ‘병탄’을 마음에 담고 있었고,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을 일본의 관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다만 ‘병탄’을 ‘합방’과 ‘아시아주의’로 위장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다케우치가 ‘책임감의 보상’으로 출판했다는 『비사』(秘史)는 우치다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습성이며, 그들은 이리의 잔인하고 혹독한 본성을 아침과 가식의 양가죽 속에 감추고 있다. 불쌍해서 친절을 베풀면 버릇없이 굴고, 안어주면 업어달라고 매달리고, 실질적인 독립심은 없으면서도 겉으로의 독립만 추구하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 이제부터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한국인들을 조종하여 일본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²⁴

우치다의 목표는 처음부터 ‘한국인들을 조종하여 일본의 목적’, 즉 가쓰라 다로(桂太郎) 수상의 표현을 인용하면 “유사 이래의 숙제이고 유신 이래의 현안인 한국병합”을 달성하는 것이었다.²⁵ 다만 외형적으로라도 이를 ‘한국인의 요구에 의하여 성립된 역사적 사실’, 달리 표현해 ‘합방’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도는 한일 ‘병합’조약이 조인된 1910년 8월 29일 우치다가 남긴 자신의 ‘축시’(祝詩)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22 松本健一, 「思想としての右翼」, 『現代史想』, 1976. 7.

23 「アジア主義の展望」, 36~37쪽.

24 黒龍會, 『日韓合邦秘史』 1, 13쪽.

25 徳富猪一郎 編, 『公爵桂太郎』(坤卷), 故桂公爵記念事業會, 1917, 451쪽.

한의(韓依)는 일본 옷으로 변하고/오늘부터 압록강에서 목욕하고/아마테라스오
미가미(天照大神)의 그림자를/우러러 보리²⁶

현양사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는 아시즈 우즈히코(葦津珍彦)가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치다 료헤이는 “현실적 국가이익을 무시한 관념적 로맨티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자였고, ‘의’보다는 ‘국익’을 항상 우선한 인물”이었다.²⁷ 이는 비단 우치다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익과 아시아주의자의 공통된 속성이기도 하다.

3. 아시아주의와 중국혁명

메이지 초기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힘을 합쳐야한다는 아시아주의의 발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중국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랫동안 중화문명권의 주변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은 중국을 기본적으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대국 중의 하나로 인식해왔다. 일본인들은 아편전쟁 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무기력함과 정치적 혼란도 잠정적 현상일 뿐 대국으로서의 중국 이미지는 여전했다. 유신 원훈의 한 사람이었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중국인이 지금은 수면 중에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뭉쳐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고, 한번 영웅호걸의 지사가 나타나서 대중이 품고 있는 애국심과 충성심을 드높이면 4억의 국민은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충신으로 변할 것”이라고 표현한 중국에 대한 신뢰감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²⁸ 대부분의 메이지 지도자들은 비록 중국이 퇴화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나 문화적

26 内田良平, 『黒龍濶人歌集』, 黒龍會出版部, 1934, 15쪽.

27 葦津珍彦, 『武士道: 戦闘者の精神』, 徳問書店, 1960, 168쪽.

28 渡辺幾治郎, 「支那保全論」, 『日本近世外交史』, 千倉書房, 1938, 301~306쪽.

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강력한 연대를 맺는 것이 서양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고, 민족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믿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으로 정치적 권위가 확립되고 서구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며, 밖으로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평등조약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스테판 다나카(Stepan Tanaka)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가 아니라 무질서의 장(disorderly place)”으로 바뀌었다.²⁹ 중국과의 연대도 초기처럼 절실하지 않았다. 중국을 향한 아시아주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질하기 시작했다.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이라기보다는 국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아시아주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중국의 개혁과 혁명운동의 해외기지나 다름없었다. ‘멸만흥한’(滅滿興漢)을 외치며 중국의 변혁과 발전을 꿈꾸던 많은 중국의 개혁가들과 혁명가들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캉유웨이, 량치차오, 쑨원, 쑹자오런(宋教仁), 황싱(黃興) 등이 그들이다. 대륙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의 우익들은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도야마 미쓰루, 미야자키 도텐,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우치다 료헤이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의 통합, 즉 아시아주의였다. 중국은 먼저 일본의 지원을 받아 봉건체제인 청조(淸朝)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체제를 건설하고, 일본과 중국이 연대해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리타자오(李大釗)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주의는 ‘중국병탄주의의 은어(隱語)’였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중국혁명은 쑨원이 이끌었다. 그리고 일본의 우익들은 쑨원과 그의 혁명동지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청일전쟁 이후 청조가 몰락하는 모습을 드러내자, 쑨원은 오직 혁명만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29 Stepan Tanaka,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108.

구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1895년 최초로 광저우(廣州)에서 무장 거병을 시도했다. 거병은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후 그는 1925년 사망할 때까지 모두 10여 년 동안 일본을 혁명과 망명의 거점으로 삼았다. 실패를 거듭한 무장봉기,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수립, 위안스카이와의 협상과 대결, 호법(護法)정부, 코민테른과의 연계, 국공합작 등을 거치는 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는 일본을 망명지로 택했고, 우익의 지원을 받았다. 혁명을 이끈 핵심 조직체라 할 수 있는 중국혁명동맹회(1905)도 우익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쿄에서 창립했다.

쑨원이 처음 일본으로 망명했을 당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도 개혁운동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해 있었다. 일본의 우익들은 이들과도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도야마 미쓰루를 위시한 우익활동가들은 조심스러운 캉유웨이의 개혁론보다 행동적인 쑨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가들에게 더 협조적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아시아주의라는 이념적 바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혁명세력이 일본의 대륙 진출에 더 협조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쑨원은 중국혁명을 위한 일본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 쑨원이 흑룡회 회두(會頭) 우치다 료헤이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중국혁명의 목적은 멸만흥한에 있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에는 “장성(長城) 동쪽의 영토는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만주와 몽고의 권리는 일본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을 건립할 때(1912), 쑨원은 임시대통령으로서 우치다 료헤이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³⁰

이와 같은 쑨원의 태도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아시즈 우즈히코가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륙낭인이 중국동맹회의 운동에 호의를 가지게 된 것은 동아의 해방, 중국인민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혁명가의 뜻에 공감하고 동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혁명 성취 후 만주와 몽고의 권리를 일본에 이양한다는 만주 문제에 대한

30 한상일, 『일본 제국주의의 한 연구』, 263, 276쪽.

혁명당의 입장과 일본의 국책 사이에 이해의 일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다.³¹ 우치다 료헤이가 쑨원의 혁명정부 수립을 위해 오후라(大倉)상회, 미쓰이(三井)재벌, 니혼유센(日本郵船)회사 등을 중재해 거액의 혁명자금을 조달한 것도 혁명 완수 후 돌려받을 만주와 몽고에서의 특권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혁명 후, 중국통일을 목표로 했던 쑨원과 혁명 지원 대가를 기대했던 일본의 혁명 지원세력 사이에 이해가 충돌했다. 아시아주의를 앞세운 청조의 붕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의 혁명세력과 일본의 우익이 공동전선을 펼 수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목적을 달리하는 두 세력은 청조 붕괴 후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중국 건설을 꿈꾸는 중국 민족주의자들과 아시아 지배를 꿈꾸는 일본 팽창주의자들과의 ‘이상한’ 협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었다. 극명한 분열은 쑨원의 고베 연설에서 드러났다.

1924년이 저무는 11월 말 쑨원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베(神戸)를 방문했다. 우익의 거두이고 ‘연대’의 이름으로 중국의 혁명을 지지한 도야마 미쓰루를 만나 일본이 만주와 몽고에서 확대하고 있는 특권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21개조 요구’를 철폐할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도야마는 쑨원이 요구한 불평등조약 철폐에 관해서는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만주와 몽고에서 일본이 넓혀가고 있는 특수권의 포기는 거부했다. 도야마는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국민의 뜻’을 내세웠다. 회담은 무위로 끝났다.³²

일본을 떠나기 전날인 11월 28일, 쑨원은 고베여자고등학교에 모인 수천 명의 일본인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그의 생애에 마지막 강연이기도한 이 연설의 제목은 ‘대(大)아시아주의’였다. 그의 강연은 서양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독립을 획득하고 아시아 부흥에 앞장선 일본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1904)에서 일본의

31 葦津珍彦, 『大アジア主義と頭山滿』, 日本教文社, 1955, 155~156쪽.

32 회담과 연설에 관하여는 藤本尚則, 『巨人頭山滿翁』, 田口書店, 1932, 517~530쪽 참조.

승리는 모든 아시아인을 복돋우고,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위대한 역할을 담당했고, 아시아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러일전쟁을 회상했다. 이어진 강연은 일본의 ‘패도적(霸道的) 아시아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세계정세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 대립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동양의 문화는 인의(仁義)와 도덕에 기반하는 ‘왕도(王道)문화’이고, 서양문화는 공리와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패도(霸道)문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 민족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이념적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대아시아주의는 반드시 인의와 도덕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인의도덕이야말로 대아시아주의 가장 알맞은 기초”였다. 그러나 일본은 인의도덕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여러분, 일본 민족은 한편으로는 이미 구미의 패도문화를 이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왕도문화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이 세계문화의 갈림 길에서 서양 패도의 번견(番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양 왕도의 간성(干城)이 될 것인가, 이는 일본 국민이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택했다. 1898년 이후 일본을 거점으로 한 쑨원과 우익의 관계는 열렬한 동반자로 시작하였다. 공감의 이념적 바탕은 아시아주의였다. 그러나 중국 민족주의의 각성과 일본이 부강해지면서 점차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 커지게 되었고,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 통일과 대륙 진출이 충돌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우익과 중국의 혁명가들의 연대인 아시아주의는, 마스미 준노스케(升味準之輔)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홍룡하는 국가와 몰락하는 국가의 두 집단의 배설물의 향응”이었을 뿐이었다.³³

33 升味準之輔, 『日本政黨史論』3, 東京大学出版部, 1967, 129쪽.

4. 사상적 총동원체제: 동아협동체

메이지 시대가 끝나는 1912년에 이르러 일본은 서양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식민제국을 건설했다. 메이지를 이은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함으로써 메이지 이후 국가목표로 설정했던 ‘부국강병’을 성취했다.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외쳤던 ‘탈아입구’(脱亞入歐)의 경지에 들어섰다. 막부 말기부터 엄습해왔던 ‘위기의식’은 사라지고, 제국주의의 침병이었던 우익과 아시아주의도 수면 밑으로 잤아들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양상은 바뀌었다.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정당정치는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찍혔고, 전쟁특수의 경제호황은 불황으로 이어졌으며, 독점자본주의의 횡포는 자본주의를 배척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농촌경제의 몰락, 확대되는 빈부격차, 노동세력의 등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관동대지진과 금융공황은 사회적 혼란을 더욱 격화시켰다.

국제관계에서도 일본은 점차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 중 점령했던 산둥성(山東省)은 전후 강대국의 압력으로 중국에 반환해야만 했다. 약 5000명의 사상자를 낸 시베리아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일본의 해군력 축소를 요구했고, 차별적 이민정책을 실시했다. 영국은 그동안 세 번 연장했던 영일동맹의 갱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21개조 요구’ 이후 중국대륙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반일민족주의였다.

안과 밖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일본에게 커다란 위기감을 몰고 왔다. 1931년 애향숙(愛鄉塾)을 설립해 폭력혁명과 소화유신론자를 배출한 농본주의자 다치바나 고자부로(橘孝三郎)에 의하면 일본이 직면한 위기는 “마치 깊은 계곡 사이에 걸려 있는 썩은 외나무다리를 눈먼 장님이 건너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 ‘기성정당 타파’와 ‘동양 민족의 지도자’

를 목표로 1932년 창립된 신무회(神武會)는 “안으로는 농민의 궁핍, 노동자의 빈곤, 실업자의 증대로 인한 비참한 생활의 신음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밖으로는 국제적 지위가 날로 위태로워져 사면초가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일본의 위기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을 우익의 사상가와 활동가들은 국가개조와 동아협동체를 품고 있는 ‘쇼와유신’(昭和維新)에서 찾았다. 당시 우익사상과 행동을 분석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사이토 사부로(齋藤三郎)에 의하면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난 일련의 ‘행동’은 “현재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한 일본의 추진력으로서 일본정신의 발로”였다.³⁴

국가개조의 핵심은 서양을 모델로 삼은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파하고 천황친정의 일본정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천황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君側の奸]을 제거하고, 일본정신을 망각한 정당과 의회를 타파하고, 모든 악의 근원인 ‘재벌’[金權閥]을 잘라버리고, 자본주의경제를 통제 경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걸어온 서양화의 길은 결국 일본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따라서 ‘초극’(超克)의 대상이었다. 교토대학의 서양사학자로서 ‘근대의 초극’ 운동에 참여한 스즈키 시게타카(鈴木成高)에 의하면 “정치에서는 데모크라시를 초극(超克)하고, 경제에서는 자본주의를 초극하고, 사상에서는 자유주의를 초극”하는 것이 일본 가야할 길이었다.³⁵

크고 작은 우익단체들이 다시 일어났고,³⁶ 1931년에는 우익단체들을 연합한 전일본애국자공동투쟁협의회(全日本愛國者共同闘争協議會, 약칭 日協)이 발족했다. 투쟁 강령은 1) 망국의회정치를 복멸(覆滅)하고 천황친정을 실현하고, 2) 산업대권을 확립하고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3) 국내 계급대립을 극

34 齋藤三郎, 「右翼思想犯罪事件の綜合的研究: 血盟團事件より二・二六事件まで」, 『現代史資料: 國家主義運動』 1, 1938, 5쪽.

35 廣松涉, 『〈近代의 초극〉論』, 講談社, 1989, 18쪽에서 재인용.

36 老壯會, 猶存社, 行地社, 神武會, 天劍黨, 士林莊, 血盟團, 大亞細亞建設社, 經綸學盟, 青年日本同盟, 愛鄉會, 國體擁護聯合會, 군부 안의 王師會, 無名會, 一夕會, 櫻會, 小櫻會 등이 많은 단체의 일부였다.

복하고 국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³⁷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너무 심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개량’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했다. 일거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 건립하는 ‘폭력혁명’이 필요했다. 1930년대 쿠데타의 ‘경전’이라는 『국가개조안원리대강』(國家改造案原理大綱)의 기타 잇키(北一輝)에 의하면 개량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근본 조직이 건전하다는 전제 밑에서 법률과 관습에 의해 지엽적인 것을 교정하고 정리”하는 것이며,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체계의 전체적 변혁을 위한 파괴와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었다. 기타의 상황 판단은 “옛 국가와 옛 사회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부수는”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었다.³⁸ ‘1인 1살’(一人一殺)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던 이노우에 닛소(井上日昭)는 “병아리가 껍질을 파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괴 그 자체가 이미 건설을 뜻하고 있다. 혁명은 파괴이고 이것은 곧 건설”이라고 외치면서 행동을 촉구했다.³⁹

쿠데타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1931년의 3월 사건과 10월 사건은 혈맹단 사건, 5·15암살테러, 국체명징운동, 그리고 도쿄에 계엄령을 불러 온 2·26쿠데타로 절정을 이루었다. 국가개조의 이념과 목표와 방법을 제시했던 기타 잇키, 쿠데타를 지도한 니시다 미쓰기(西田税), 그리고 행동에 직접 참여했던 청년장교들 모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국가개조도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외형적 실패를 통해 국가개조의 이상과 목표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다.⁴⁰ 국가개조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1936년 이후 ‘군부’가 권력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리고 안으로는 정당 해산, 총동원체제, 통제경제체제로 전환했고, 밖으로는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로 팽창을 진행해나갔다.

37 公安調査廳, 『資料: 戦前における右翼團體の状況』(上), 560~564쪽.

38 北一輝, 「維新革命論」, 『現代史資料: 國家主義運動』 3, 1926, 232~236쪽.

39 井上日昭, 「梅の實」, 『現代史資料: 國家主義運動』 2, 317~408쪽.

40 Ben-Ami Shillony, *Revolt in Japan: The Young Officers and the February 26, 1936 Incid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209~219.

안으로 폭력혁명을 지향했던 우익 사상가들은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아시아의 연대를 강조했다. 기타 잇키,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와 더불어 1930년대의 소화유신운동에 사상적 불씨를 지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는 아시아의 단합을 중요한 명제로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서양’은 아시아의 지배와 착취를 효과적으로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중국 내부의 당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족 사이에 분열을 유도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과 중국의 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민족 사이에 대립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국가가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었다. 오카와는 운명공동체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는 한편으로 유럽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패한 사회적 전통을 무너뜨리고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는 정치적 운명공동체다. ...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걸으로는 천차만별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계관, 인생관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는 또한 문화적 운명공동체다.⁴¹

정치적, 문화적 운명공동체인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서양의 압박에서부터 해방과 동양문화의 재현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쇼와유신론자들에 의하면 1931년의 만주사변도 이러한 사상의 구체적 행동이었다. 관동군 참모본부에서 만주사변을 기획, 참여한 가타쿠라 다다시(片倉表)에 의하면 만주사변은 “이상국가의 건설, 민족과 민족의 화합 달성, 젊은 일본 청년의 대륙 개척을 위한 휴머니즘의 발

41 大川周明, 『大東亞秩序建設』, 第一書房, 1943, 134쪽.

로 등 모두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개화(開化)”였다.⁴²

“만주사변은 나로 하여금 방향 전환의 기회를 주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잡지 『만주평론』(滿洲評論)의 주간 다치바나 시라키(橘樸)는 사변 후 만주국 건설의 정당성과 중일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그가 말하는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자에서 우익”으로 사상전환을 뜻한다. 반평생을 중국에서 생활한 ‘독보독창의 중국학자’로 알려진 다치바나는 만주사변을 주도한 관동군의 이타가키 세이사부로(板垣征四郎)와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사상과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행동(만주사변)의 직접 목표는 아시아 해방의 초석으로서 동북 4성(만주)을 판도로 하는 하나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절대로 신뢰하고 일체의 기득권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만주국 건설을 재촉했다.⁴³ 만주사변은 만주국 건설(1932), 국제연맹 탈퇴(1933), 중일전쟁(1937)으로 이어지면서 동아협동체 구축을 재촉했다.

아시아 해방과 통합에 ‘한 전기를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다치바나 시라키의 표현을 빌리면 “범아시아운동의 유행시대”에 접어들었다(“凡亞細亞運動の新理論”). ‘동아협동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아시아주의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동아협동체의 논리적 구조는 동아시아에서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식민지,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협동’이 필요하고, 이 협동을 위해서 기존의 내셔널리즘을 뛰어넘는 ‘이성적’이고도 ‘과학적’인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⁴⁴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운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33년의 대아세아협회(大亞細亞協會) 창립이었다.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를 위시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으

42 片倉衷, 『戰陣隨錄』, 經濟往来社, 1쪽.

43 橘樸, 「滿洲事變と私の方向轉換」, 『橘樸著作集 II: 大陸政策批判』, 勁草書房, 1966, 17~19쪽;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268~282.

44 동아협동체 논의와 발전에 관하여, Jung-sun N. Han,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p.152~87 참조.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군·학·언론계의 지도급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이 협회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⁴⁵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설을 세계사적 변화의 ‘서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아세아협회는 만주국 출현을 계기로 “아시아인의 자율과 자강에 의한 아시아의 신질서 확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시아협회가 제시하는 대의명분은 아시아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로 제시하는 운명공동체론에 근거하고 있다. 창립취지서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생각컨대 아시아는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또한 인종적으로도 명확한 하나의 운명공동체다.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참된 평화와 복지와 발전은 오직 하나같이 아시아의 자각과 유기적 결합 위에서만 가능하다. 아시아의 국가가 서로 반목하고 항쟁하는 것은 외래의 간섭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지금 아시아의 위에 가하고 있는 중압을 스스로 가중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시아 제국 서로 항쟁의 기회를 두절하고 외래의 간섭과 이간을 배척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분열되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하나의 연합체로 통일해 조직하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⁴⁶

앞에서 인용한 오카와 슈메이의 운명공동체론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아시아인의 아시아’ 구축을 누가 주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질 민족은 일본뿐이었다. 2·26쿠데타를 배후에서 지도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투적 혁명가’인 니시다 미쓰기는 “동방

45 193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33년 3월 1일 창립된 아시아협회를 이끈 중요한 인물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시작한 고노에 후미마로, 언론계의 대부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외교관 출신으로 총리를 역임하고 패전 후 A급 전범자로 처형된 히로다 고키(廣田弘毅), 난징학살 책임자로 처형된 육군대장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퇴역 후 내무상(1937)과 대동아건설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해군 대장 스에쓰구 노부마사(末次信正), 유존사를 설립한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중국사학자로서 교토대학 교수인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일본 고대사학자로서 황국사관을 주도한 도쿄대학의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서양사학자로서 도쿄대학 교수인 무라카와 겐코(村川堅圃), 중국경제학자로서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인 네기시 다쓰시(根岸佶), 동아연맹론 주창자인 와세다 대학의 나카타니 다케요(中谷武世) 등이 그 일부다.

46 『大亞細亞協會年報 1934』, 1쪽.

제국을 이끌고 개발해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동해의 고도 일본의 사명은 막중하다. 일본은 조선을 대륙의 발판으로 삼아 전 아시아를 통일한다는 이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아시아주의, 신일본주의의 골자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⁴⁷

일본이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주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했다. 일본은 19세기 말 격동의 서세동점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독립과 번영을 이룩했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 민족의 우수성과 능력을 과시했고, 세계의 모든 문화를 수용해 일본화할 수 있는 ‘일본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에 의하면 “자연의 추세가 일본으로 하여금 대아시아를 통합하는 “맹주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있었다.⁴⁸ 특히 세계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받아 일본화할 수 있는 ‘문화적 수용 능력’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서 문명을 융합’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인류적 사명을 짊어지게 하고 있었다. 도쿄대학의 무로카와 겐코(村川堅固) 교수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고, 이것이 일본화되어 “동양문화의 정수(精髓)”로 정착해 다시 세계를 향하여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⁴⁹ 동아연맹체의 이론을 제시한 와세다대학의 나카타니 다케요(中谷武世)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세계문명 르네상스의 원천(源泉)과 광원(光源)은 실로 황국일본이다. 역사의 눈(史眼)을 가지고 보라.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옛 말이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실현되려는 기운이 (황국 일본에) 뭉치고” 있었다.⁵⁰ 메이지시대의 아시아주의가 재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아세아협회는 대만과 광동에 지부를 설치했다. 주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대아시아주의』(大アジア主義)라는 기관지를 매달 출판해 각 계에 보냈다. 1936년 2·26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가 실질적으로 성사되고,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동아협동체가 일본의 기본정책으로 자

47 西田税, 「罵世録」, 『社會科學研究』 1976년 1月号, 370~405쪽.

48 徳富猪一郎, 「亞細亞の指導としての日本の責任」, 『大アジア主義』 創刊號, 1933년 5月号, 58~59쪽.

49 村川堅固, 「天佑の國」日本, 『大アジア主義』 1933년 6月号, 94~97쪽.

50 中谷武世, 「亞細亞人の亞細亞」とは何ぞや, 『大アジア主義』 創刊號, 94~97쪽.

리 잡았고, 이는 대동아공영권으로 발전했다. 당시 수상이었던 고노에 후미마로(제1차 내각)는 “지나사변은 동양과 세계 신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일 수 없는 일본 국책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바탕에는 “세계사의 새 장을 창조할 일본정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구체적 실체인 “동아협동체의 이념은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협동체는 “창조적 지성”이고, 이를 완성하는 것은 일본의 “건설적 임무”였다.⁵¹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대아시아협회는 “지나사변에 대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전면적, 근본적 그리고 일거적(一擧的) 해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거국일치적 체제와 국민총동원적 지지”를 호소했다.⁵²

메이지 시대의 아시아주의와 달리 쇼와 전기의 아시아주의라 할 수 있는 동아협동체의 특징은 우익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노에 후미마로의 정책연구소인 쇼와연구회(昭和研究會)의 핵심 인물이었던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를 비롯해서, 마르크스주의자 미키 기요시(三木清), 후나야마 신이치(船山信一), 가다 데쓰지(加田哲二), 조르게 사건으로 처형된 공산주의자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 진보주의자로서 『아사히(朝日)신문』의 논설위원이었던 류 신타로(笠信太郎), 다이라 데이조(平貞藏), 스기와라 마사미(杉原正巳) 등이 그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직후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등의 『문학계』(文學界) 지식인과 고사카 마사아키(高坂正顯) 등의 교토학파가 주도하는 ‘근대의 초극’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협동체가 보여주는 아시아주의는 우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상적 ‘총동원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51 杉原正巳, 『東亞協同體の原理』, モダン日本社, 1939, 1~2쪽.

52 卷頭言, 「全面的且つ根本的解決」, 『大アジア主義』 1937年 8月号, 1쪽.

5. 전후의 우익과 아시아주의

전후 상당 기간 우익과 아시아주의의 존재는 희미했다. 우익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현양사나 흑룡회를 비롯한 많은 우익단체들은 점령당국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아시아주의 또한 대륙 팽창의 도구로서, 또는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적 바탕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시모다 쇼(石母田正),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 니지마 사다오(西嶋定生), 히로마쓰 와타루(廣松渉) 등 고대사와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사를 ‘동아시아’라는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다케우치 요시미나,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대동아전쟁긍정론』(大東亞戰爭肯定論)), 우에야마 슌페이(上山春平, 『대동아전쟁의 유산』(大東亞戰爭の遺産))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태평양전쟁은 한편으로는 침략전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전쟁이었다는 ‘전범 역사 지우기’ 주장이 대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류를 이루지는 못했다. 1952년 미국의 점령통치가 끝난 후 장기간 지속된 자민당 집권의 뿌리와 정책이 보수적이었다 할지라도, 패전 후 상당 기간 일본사회를 지배했던 진보적 또는 사회주의적 경향의 지적 풍토 속에서 우익과 아시아주의가 설 자리가 그리 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국내외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익과 아시아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국제사회는 지각 변동의 격변을 체험했다. 한 세기에 걸쳐서 실험해본 사회주의의 실패는 소련 연방의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냉전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55년 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 불안,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경제침체,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리더십과 비전의 결핍 등은 일본사회를 받쳐온 자신감과 정체성을 상실케 했다. 빌 에모트(Bill Emmott)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가라앉는 태양』(*The Sun also Sets*)을 현실에서

실감하면서 일본인은 불안했고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나타난 국내외의 상황 변화와 이로 인한 위기의식은 일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 진로를 모색케 했다. 동아시아가 다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웃 아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것이다.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동체의 구성원은 중국, 일본, 남·북한, 대만, 몽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한자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동일 문화권의 공통성을 핵심적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 EU의 발전 과정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먼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나가서 정치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⁵³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진보적 또는 좌파적 배경을 가진 지식인과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일본에서 시작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고 지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추진력을 거의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진보적·사회주의 계열의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실패한’ 아시아주의와 역사적 체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그리고 수사적인 공동체 담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영토 분쟁, 과거 역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위안부 부인, 개헌 등은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더욱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우익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 또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우익이 비록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53 예를 든다면 森嶋通夫, 『日本の選択-新しい国造りにむけて』, 岩波書店, 1995; 大沼保昭, 『東亞の構想: 21世紀東アジアの規範秩序を求めて』, 筑摩書房, 2000; 姜尚中, 『東アジア共同の家をめざして』, 平凡社, 2001; 西川長夫, 『国境の越え方: 国民国家論序説』, 平凡社, 2001; 和田春樹, 『新地域主義宣言: 東北アジア共同の家』, 平凡社, 2003;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 日本経済新聞社, 2005 등이 있다.

아니었지만, ‘아시아와의 연대’를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오늘의 우익은 ‘아시아와의 단절’의 길을 가고 있다. 현재 우익 진영은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개찬(改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우익단체인 ‘일본회의’(日本會議), ‘영령에 답하는 모임’(英靈にこたえる會),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민의 모임’(みんなで靖國神社に參拜する國民の會) 등은 청일전쟁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수행한 모든 전쟁은 “일본의 자주독립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200만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모든 국민들이 참배”하고, 나아가서 “하루라도 빨리 천황 폐하가 참배하는 날”이 올 것을 기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센카쿠 열도(尖閣列島)와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위안부와 같은 것은 없었다는 역사교육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⁵⁴

1990년대부터 일본사회를 휩쓸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 또한 메이지 이후의 침략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의 역사교육은 자학사관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교육이라고 규정하면서, 청일전쟁은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러일전쟁은 백인국가를 굴복시킨 위대한 국민전쟁이었고, 한국병탄은 한국인의 요구와 강대국들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었고, 식민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하고 자비로웠고,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난징대학살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양 제국주의 지배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 사회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집회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⁵⁵

2002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러낸 ‘넷우익’은 2007년 1월 오

54 <http://www.eireinikotaerukai.com>: <http://www.nipponkaigi.org>(검색일: 2013. 7. 31)

55 <http://www.tsukurukai.com>(검색일: 2013. 8. 19)

프라인에서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在特會: 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會)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됐다. 재특회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13년 8월 말 현재 1만 3,630명의 등록회원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가고시마(鹿児島)에 이르기까지 전국 34개 지부의 조직망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우익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행동하는 보수’를 외치는 재특회는 ‘조선학교 무상화 반대’, ‘외국인 참정권 반대’, ‘외국적 주민에게 생활보호 지급 반대’, ‘영토 탈환’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주로 재일한국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복지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든가, “일본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재일조선인 때문”이라든가, 또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을 지배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은 목을 매달아 죽여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혐한’(嫌韓)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⁵⁶

19세기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내세운 ‘일본발(發) 아시아주의’는 세 차례 있었다. 실패로 끝난 전전의 두 번은 아시아 침략과 팽창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웃 민족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냉전 종식과 함께 세 번째로 제기된 아시아주의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그 힘이 다해가는 듯하다. 한·중·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다툼, 역사 마찰,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강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진보주의가 쇠잔해가고 있는 오늘의 지적 풍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우익 진영이 주도하는 ‘전범 역사 지우기’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가 국가주의 방향으로 침로를 정하고, 정치지도자가 일본을 ‘신의 나라’라고 외치고, 강한 일본을 강조하면서 폭력적 애국주의에 불을 지피고, ‘나치식 개혁’을 꿈꾸고 있는 한 세 번째로 제기된 아시아주의 또한 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56 安田浩一, 『ネットと愛国: 在特会の「闇」を追いかけて』, 講談社, 2012; <http://www.zaitokukai.info>(검색일: 2013. 8. 19)